



韓國忠清南道扶餘郡，種植西瓜溫室受豪雨影響造成淹水災情現場。攝影：Hae-Woon Lee

충남 부여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다 집중호우 피해로 침수된 현장. 사진출: 이해운

農協產物保險公司農業保險部 農業保險支援組組長 Hae-Woon Lee

NH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
농업보험지원팀팀장이해운

提升農業災害保險品質 全面保障農民收入

더 나은 농업재해보험제도 추진 농민들의 안전한 수익 보장

譯者／涂敏蕙

農協產物保險公司災害保險共有4大部門（經營企劃本部、廣告行銷本部、事業項目支援本部及農業保險本部），其中農作物災害保險是由農業保險本部負責處理。農業保險本部是由農業保險部與政策保險部兩個部門所構成的本部，農業保險部負責所有農作物災害保險相關業務工作；政策保險部負責家畜保險、農機械綜

농협손해보험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농작재해보험은 농업보험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협손해보험(경영기획부분/마케팅부분/사업지원부분/농업보험부분) 농업보험부문은 농업보험부와 정책보험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보험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 하고, 정책보험부는

合保險、家畜疾病醫療保險、風災與水災保險。農業保險部共有54名員工，政策保險共有23名員工。農業保險部細分為六個組別，分別是農業保險支援組、農業保險改革創新組、農業保險收購組、果園預借支付組及農作物田地支付組。

農業保險部細分為5個組別，分別是農業保險支援組、農業保險改革創新組、農業保險收購組、果園預借支付組及農作物田地支付組。

農業保險支援組主要負責每年與政府簽訂農作物災害保險相關事業協議契約、制定事業項目企劃、政府預算執行與決算、地方政府預算執行與決算、管理民間再保險與國家再保險分出業務等風險、管理農作物災害保險相關統計、負責國會等對內整體業務、教育與行銷業務等相關事宜。本期專訪農協產物保險公司農業保險部農業保險支援組組長Hae-Woon Lee，以下為專訪紀要。

Q：韓國開始推動收入保險的緣由？

A：韓國農作物災害保險於2001年首次推出，考量到農民需求，不間斷地擴增標的項目，並透過行銷和宣導農業災害保險

가 축 재 해 보 험 / 농 기 계 종 합 보 험 / 가축질병치료보험/풍수해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험부 인원은 54명, 정책보험부 인원은 23명입니다.

농협손해보험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되어 있고 그 중 농작재해보험은 농업보험부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협손해보험(경영기획부분/마케팅부분/사업지원부분/농업보험부분)

농업보험부문은 농업보험부와 정책보험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보험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하고, 정책보험부는 가축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가축질병치료보험/풍수해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보험부 인원은 54명, 정책보험부 인원은 23명입니다.

Q：韓國의 농업수입안정보험 추진 계기?

A：한국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최초 도입되어 농가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 상품 목 을 지 속 적 으 로 확 대 하고



韓國忠清南道舒川郡坡，種植番茄玻璃溫室因豪雨造成淹水災情現場狀況。攝影：Hae-Woon Lee

충남 서천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재배하다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현장. 사진출: 이해운

的相關資訊來增加保險投保率，一開始以指定風險方式(Named Peril)販售的保險商品，從2007年開始變更為保障所有天災的作物多重災害保險(Multi-Peril Crop Insurance, MPC I)產品，強化了保險商品的保障範圍。

但是目前現有的農作物災害保險產品，僅承保因天災造成的產量減少之損失，並未承保農民因市場價格下跌而造成的損失，在農業經營政策上不足以將其視為全面性安全網機制。

因此，政府探討了推動不僅能保障農民因產量減少的損失，還可以保障因市場價格下跌所造成收入減少的農業收入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보험가입률을 확대해 나갔으며, 최초 특정위험방식(Named Peril)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2007년부터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Multi-Peril Crop Insurance, MPC I) 상품으로 변경하여 상품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만을 보장하고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아 농업경영에 있어 종합적인 안전망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확량 감소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

型保險之政策，經過2013年至2014年兩年的實地演練，於2015年推出了豆類、洋蔥、葡萄3個品項的試辦產品。

在那之後，品項標的逐年擴增，截至2024年正在銷售的保險產品共有9種品項，其包含豆類、洋蔥、葡萄、大蒜、地瓜、秋天馬鈴薯、高麗菜、大麥、玉米的相關保險商品，並不間斷地擴大試辦地區。

Q：承上，推動所遭遇的困難？

A：為了擴大和穩定經營農業收入型保險，必須要能夠輕易地掌握每位農民、每個品項的實際收入與基準收入的差距變化，但韓國針對農業並沒有訂定相關的稅收制度。目前我們是在收割季節時，實際調查各投保農地的實際收穫量，再跟各品項別與細項品種的各個基準價格（Projected Price）相比，確認收割季節的價格變化（Harvest Price）後，掌握每個投保農地別的基本收入與實際收入間之差異。

據了解，美國、加拿大等農業為主要大規模產業的國家，皆具有完善的農業相關稅收制度，相較於普遍為小規模農民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2013년~2014년 2년간의 도상연습을 거쳐 2015년 콩, 양파, 포도 3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도별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2024년 현재 9개 품목(콩, 양파, 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에 대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Q：농업수입안정보험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

A：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품목별 기준수입 대비 실제수입의 변화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한국은 농업관련 세금제도가 없어 현재는 수확기에 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지에 대한 수확량을 조사하고, 품목별, 세부적으로는 품종별 기준가격(Projected Price) 대비 수확기가격(Harvest Price) 변화를 확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지별 기준수입 대비 실제수입 차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 캐나다 등 대규모 기업농 위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세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們的亞洲國家，並沒有完善的農業相關稅收制度。

未來，為了擴大農業收入型保險涵蓋範圍，除了透過對當前在收割季節對所有投保農田進行產量調查來確認農業收入的方法之外，還必須建立值得信賴、快速並能簡單準確掌握農民收入的方法。

Q：韓國未來農業保險政策的目標？

A：目前韓國共開辦了73種農作物災害保險項目，該73種項目的農業生產毛額占全韓國農業總生產毛額90%以上。此外，以2023年為基準，保險投保項目的面積投保率為52.1%，是自2021年推出農作物災害保險以來達到令人刮目相看的成績。

然而，在農業領域，有許多人要求將目前尚未列入投保項目品項納入保險商品中，還有要求擴大部分正在試辦的相關品項的業務地區。

因此，必須透過與政府協商持續擴增投保標的項目，還需要具備能推廣地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농업관련 세금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확기에 보험에 가입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수확량 조사를 통해 농가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 외 신뢰성이 있으면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농가 수입 파악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농업재해보험의 앞으로의 목표?

A：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73개로 한국 전체 농업생산액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보험가입 대상품목의 면적가입률은 52.1%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사업지역 확대 요구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方特產的農業設施與方案，將地方特產事業範圍擴張至全國。

此外，全部產品中相關投保面積率為52.1%，但個別產品中也有不少投保率較低的產品，因此目前其中一大課題就是必須掌握其產品投保率為何較低的原因並改善保險產品以提高投保率。

Q：目前韓國農業保險面臨什麼挑戰？以及未來展望如何？

A：過去5年（2019年至2023年）農作物災害保險（包含農業收入型保險）的損

일부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의 사업지역을 제반 인프라를 갖춰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품목에 대한 면적가입률은 52.1%이나 개별 품목별로는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들이 다수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가입률 저조 사유를 파악하고 상품을 개선하여 가입률을 끌어 올리는 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Q：농업재해보험이 당면 현안 및 앞으로의 전망?

A：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失率為107%，我認為韓國農業災害保險在農民的穩定農業經營上與災後的再生能力活動上，提供很大的貢獻。

但是，站在農民的立場，保障病蟲災害、品質保障、年均收成、適當的標準價格等問題，一直都是保險中不斷出現的盲點。

目前，韓國僅針對保險投保項目中的4種品項（米、辣椒、馬鈴薯、水蜜桃）保障病蟲害造成的部分損失，對於其他品項的病蟲損失，無論是否和天災存在著因果關係，均不予賠償。然而，由於全球暖化引起的反聖嬰現象、聖嬰現象等異常氣候，受到天災危害的頻率日漸增多，嚴重程度逐漸上升，難以即時防治的病蟲害數量也隨之增加。因此，韓國政府目前正推動與病蟲害相關研究，並計畫在未來逐步擴大病蟲害的保障範圍。

此外，農民們也不斷請求改進制度，以應對儘管因天災發生收割，但因賣相不佳導致價格下跌造成的損失。目前，我們正間接地補償洋蔥、蒜頭、地瓜等，因尺寸小於或大於一般平均尺寸而未能取得正常等級認證時所發生的品

포함) 누적 손해율은 107%로 한국 농업재해보험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피해 농가의 재생산 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보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병충해 보장, 품질보장, 평년수확량 및 표준가격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보험가입 대상품목 중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를 일부 보장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와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병충해 피해는 모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엘니뇨, 라니냐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 빈도 및 심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적기 방제가 어려운 병충해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병충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은 하였으나 상품성 저하로 인한 출하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파, 마늘, 고구마 등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韓國慶尚北道安東市，受豪雨影響造成淹水災情現場。攝影：Hae-Woon Lee

경북 안동 비닐하우스가 호우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출: 이해운

質損失，但未來有必要建置保障品質相關的勘損基本設備，擴大保障因天災導致品質下降的農產品損失範圍。

韓國農作物災害保險是根據過去5年的收穫量與價格統計數據為基準計算出作為投保標準的平均年收穫量和標準價格，但實際上有許多農民不滿使用以前天災的產量數據、單價作為計算未來的產量與價格補償基準。未來，為了能穩定農作物災害保險與農業收入型保險的重要保障核心，我們計劃繼續研究升級平均年產量與標準價格。

Q：對農業保險有何期許？

A：雖然的確有很多人針對農作物災害保險和農業收入型保險有許多不滿，且要求完善制度，但我認為韓國的農業災害保險在這短短20年左右的時間裡已經成為韓國農業災害對策之一。

사이즈가 작거나 커 정상 등급을 받지 못하 발생하는 품질하락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하고는 있으나, 향후 품질보장 관련 손해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품질저하 보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농작물재해보험은 과거 5년간의 수확량 및 가격 통계를 기초로 보험가입 시 기준이 되는 평년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과거 재해 피해가 있는 수확량 데이터를 기초로 향후 보장수확량을 산출한다는 것, 과거의 가격을 기초로 미래의 보상이 되는 가격을 산출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보장의 핵심인 평년수확량 및 표준가격 고도화를 위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Q：농업재해보험에 기대하는 점?

A：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관련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한국 농업재해보험은 20년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농업재해대책으로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韓國慶尚北道安東市，受豪雨影響造成淹水災情的農地。攝影：Hae-Woon Lee

경북 안동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농지. 사진출: 이해운

大家常說保險是建立在社會基礎設施和統計基礎上，但我認為韓國在缺乏農業相關基礎設施、各項目的產量、價格以及災害統計數據的情況下，農業災害保險之所以存在是因為我們透過保險業務建立了自己的基礎設施，並透過每年不斷的改進制度來滿足農民的需求。

未來，期望韓國農業災害保險除了目前的量的擴張外，還可以努力提升品質，將目前主要針對天災造成的產量之損失的產品，發展成能夠全面保障農民收入減少的項目。

보통 보험은 사회적 인프라와 통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성장한다고들 하지만, 농업관련 인프라와 품목별 수확량 및 가격, 재해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면서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는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의 니즈에 충족하려고 노력한 것이 현재 한국 농업재해보험이 있게 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 농업재해보험은 그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상품을 농가의 수입감소를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